섬유 업계에서 들려오는 토막 소식들 <1>

◎ 프리 다이빙의 블러드 시프트 현상

TV를 보고 있으면 곧 잘 카메라 맨(camera man)이 공기탱크를 지고 물속에서 돌아다니며 촬영하는 신(scene)을 볼 수가 있는데 프리 다이빙(free diving)에서는 공기탱크 등의 기구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자기 체력으로 얼마나 깊이 들어갈 수 있느냐를 경쟁한다고 한다.

태양 광선이 거의 미치지 못하는 수심 100m 속의 세계는 그랑 블루(Grand-blue)라고 부른다고 한다. 이런 깊이에 도달한 사람은 세계에서 13명 뿐이라고 하는데, 일본의 시노미야(篠宮) 프로 다이버(pro-diver)는 깊이 107m의 기록을 갖고 있다. 그랑 블루의 세계에서는 “바다와 사람이 녹아서 하나가 된다.”고 표현하고 있다.

프리 다이빙을 하는데 있어서 훈련된 다이버의 몸은 블러드 시프트(blood shift)라는 현상을 체험하게 된다. 이 현상은 물속에서 생명을 유지하고자 팔이나 다리의 혈액이 줄고 뇌나 심장 폐와 같은 중요한 기관에 필요한 산소를 효율적으로 보냄으로써 위기에서 생명을 지키는 선택과 집중이 몸속에서 자동적으로 이루어진다.

이와 같은 작용은 돌고래나 바다표범과 같이 바다 속에서 생활하는 포유류 동물이 갖추고 있는 능력이다.

일본에서는 정부나 대부분의 기업이 매년 4월에 새로운 년도가 시작되어 그 이듬해 3월 말로 년도가 끝나므로 3월에는 많은 기업들이 결산하고 새로

운 연도(年度)의 체제나 중기 계획 등을 발표하고 있다. 그러므로 기업으로서는 연도가 바뀌면서 블러드 시프트가 적절히 잘 되었는지 확인하는 시기라고 볼 수 있다.

◎ 중국의 노동력 확보는 수주 상황과 관련

중국은 그동안 여러 산업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값싸고 풍부하다던 노동력이 부족하게 되어 지역에 따라서는 매우 심각할 정도가 되었다. 특히 춘절의 연휴가 끝난 뒤에는 봉제 공원(縫製 工員) 등의 복귀가 특히 주목을 받고 있다.

화둥 지구(華東 地區) 봉제 공장의 경우 오더가 잘 들어오는 공장일수록 종업원이 잘 돌아오며 새사람을 뽑는 데에도 힘이 안 들어 정원의 충족률은 90%를 넘는다. 반대로 오더가 잘 안 들어오는 공장에서는 50 ~ 60% 정도로 어려움을 겪게 되며 빈자리를 충원하기 위하여 새 사람을 뽑는데도 쉽지 않다고 한다.

춘절 휴가로 고향으로 돌아가기 전에 봉제 공원들은 원단 창고를 체크하여 원단 재고가 잘 준비되어 있으면 잘 돌아오지만 그렇지 않으면 돌아오지 않는다. 경영자도, 금고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원단 재고를 보여주기 위하여 쌓아두고 대항한다는 우스갯소리가 있다고 한다.♣